

## 이건용 총장의 기억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백서, 2012

### 본격적인 하드웨어를 갖추는 일

내가 총장에 부임했을 때 6개원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학교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확충하고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죠. 그때 서초동에 음악원, 무용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만이 우리 거였고,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뭐 이제 석관동에 옮겨가긴 갔는데, 그 건물은 다 빌려쓰는 거고 다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절대절명으로 우리 건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의 제일 처음 개념은 소프트웨어의 학교이다 이거예요. 시행령 보면 알지만 시행령에 뭐라 돼 있냐면, 문화부 장관이 학습장으로 지정하면 그 소속하고 있는 곳에서는 학습장을 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건물을 따로 안 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땅을 내놓습니까. 말하자면 너무 이상적인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세울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이사했는데. 이강숙 총장님의 최대 업적은 상당한 우려와 심지어는 저항을 뚫고 6개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했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 원마다 해당 예술계의 대단한 기대와 축복 속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렇게 개원하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국가에서 이거 만들자 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뭐 이것저것 구김살이 있거나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존경받는 인사들로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자문만 하고 다 끝나고 그다음에 그 자문에 의거해가지고 입학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원을 책임질 사람을 모시고. 그 책임진 사람에게 거의 전적인 모든 외압을 물리치고 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원을 구성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다른 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지경까지 이게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주춤해버리면 그런 추진력이 나오지 않지 않았겠죠. 미술원이 5번째로 개원했는데, 내가 그때 교학처장으로서 미술원 개원까지 참여했었는데, 그때 미술원의 입학자문위원, 미술원 자문위원을 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미술계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자기네 학교에서, 다 각각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흥대도 있고, 많이. 자기네 학교에서 해볼 수 없었던 것들을 여기다 다 실현시킨 거예요. 무용원도 마찬가지로 가장 이상적으로 못 해 봤는데 자기 학교에서도 못 해본 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남은 문제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절체절명의 위기는 하드웨어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땅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기초를 초대 총장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걸 연구하는 용역의 예산을 탄 거거든요. 그거 따는 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했던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이거였죠. 그래서 석관동 캠퍼스를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준공을 못 보고 끝났지만 그 준공할 때 갔죠. 참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근사하게 짓고 그게 이제 그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런데 그 때는 교학처장 하나밖에 처장이 없었어요. 교학처장이 학교의 여러 가지 교무와 학생업무를 맡아서 하는 걸로도 벅찬데 이제 뭐 건물을 짓고 하는 거 그거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처장 하나가 더 필요했죠. 장기적인 학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추진해가야 할 사람으로서 기획처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처장하는 사람 하나 만드는 거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 학교 구조가 피라미드였다면 그걸 이만큼 내리는 작업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는 인력구조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 두 가지가 제일 다급히 해결해야 했던 일이었던 것과 동시에 내가 했던 그 당시의 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됐고 보람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

가만히 우리 학교 구조를 보니까 정말 전세계 유례가 없는 구조였어요. 동서를 가로지르고, 고금을 오가죠. 예를 들면, 연극원 같은 경우 아직도 그리스 연극을 하니까요. 그런가 하면 영상원의 한 파트는 그야말로 최첨단을 가죠. 그러니까 동서도 가장 멀리 있는 것 둘을 잡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예술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정도죠. 그래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난 지금도 그런 소신인데, 이 학교야 말로 이런 구조 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음악원 무용원, 미술원 등 여섯 개 원이 만들어진 것은 1700년대 서양 예술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반영한 거예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소위 파인 아트 개념 아니겠어요? 바움가르텐이 사상적 기초를 놓고 오랫동안 유지되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건 무너져 있어요. 사실 이제 음악 안에서 디지털을 사용하는가의 여부, 대중적인가의 여부, 어쩌면 순수한 음악, 순수한 무용의 차이의 관계는 음악 내부에 있는데, 아주 대중 음악과 아주 순수음악 사이의 갭보다 가까워요. 이렇게 묶으면 훨씬 더 쉽고, 이렇게 묶으면 음악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기엔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바움가르텐의 파인 아트의 개념에 의해서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끼리 모여 앉으면 그런 얘기 들을 참 많이 했어요. 콜로키움도 하고 그랬어요. 그 콜로키움에서 그런 얘기를 내가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을 연구할 어떤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발 더 나아가서 그런 패러다임을 만약 만들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의 예술을 주도하는 거 아니냐? 그 내 믿음 중 하나가 이 역사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가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문화의 접변 속에서 새로운 뭔가가 탄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별로 없잖아요. 로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그냥 다만 한국에서 최고 명문, 아시아의 명문,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20세기에 바우하우스가 했던 것을 흉내 낸 모습이었 다면 19세기에는 파리음악원이 그 예술 학교의 모델처럼 됐었죠. 그렇다면 21세기의 우리 학교가 이런 모델이 되는 것이 허망한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의 꿈은 갖고 나가야지. 그러면서 교수들끼리 만나서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고 그랬는데.

그러려니 6개원을 초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학교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원의 이기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게 빨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원끼리 충돌해 가지고는 이런 담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또 이렇게 6개원이 충돌해서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속에서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로 상대적 박탈감만 있을 뿐이지 풍요로움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그 중간지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봤죠. 소위 협동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것에 충실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연계하는 프로그램, 연계하는 무엇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나는 거기까지만 갔어요.

그다음 황지우 총장이 그걸 이어받아 차고 나간 거죠. 그래서 통섭의 개념도 만들고 사실 그것의 원조는 나에게 있고 그것은 우리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했습니다. 또 우리 학교의 미래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당연하고 세계를 내다보고 하는 작업이었죠. 그것은 말하자면 학교를 어디로 갖고 가야되느냐 하는 새로운 방향이었어요. 실기 위주의 학교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도가 필요했고, 19세기 개념을 뛰어 넘는 의미가 있기도 했어요.

## 각종 학교가 아닌 새로운 규정이 필요할 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각종 학교'에 분류되어 있죠. '각종 학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진짜 엄청난 굴레입니다. 뭐가 안 돼요. 우리 학교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게 만든 학교인가 하면, 우리 학교 보고 자꾸 콘서바토리 콘서바토리 하잖아요. 콘서바토리가 19세기 모델이거든요. 그때는 주로 프랑스나 유럽에 있었어요. 그게 옮겨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콘서바토리를 만들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줄리아드고 아직도 콘서 바토리로 남아있는 것이 커티스구요. 줄리아드는 나중에 그걸로 안 되니까 체제를 바꿔서 줄리아드 스쿨이 됐죠. 콘서바토리 이름을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시립대학 모델로 했기 때문에 콘서바토리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19세기 모델이. 그 갈증 때문에 콘서바토리 만들자 해서 콘서바토리가 들어오는데, 시대는 이미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 여기다 시립대학 모델을 붙인 거죠. 그래서 콘서바토리 시스템이 남아있는 것은 조기교육이라든가 영재교육 등이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도 4년 시스템 등은 시립대학이나 칼리지의 모델을 따른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20년 전에 했잖아요. 지금 유럽이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거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죠? 에라스무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유럽이 못 버텨 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힘에 못 당해서 결국 학사, 석사과정 4년 체제 이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 이름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와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학위를 안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우연히도 앞선 방향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데 그걸 붙잡는 것이 교육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강숙 총장도 실패한 것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죠. 3개의 계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가을, 겨울, 봄에 결국 그것하고 말았는데, 아직도 미완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로 토론회에 계속 들어가면 결국엔 아 그 학교만 잘되라는 법 있냐는 식으로 걸고넘어져요. 그 학교는 이미 잘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죠. 그 학교 잘되니까 거기에 날개 하나 더 붙여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잘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가지면 다른 학교 어찌란 얘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먹혀요. 그것이 우리의 정의감인가? 나는 그것이 완전히 이기심으로 보는데. 하기가 뭐 정의감이 이기심과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상처 안 받게 잘해주는 것도 정의일 텐데. 난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일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금메달 하나 더 따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야 이게 장기적인 과정에서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건데.

관련해서 속상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속상했냐 하면요. 아니 군대 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니, 서울대에 있다가 학부를 졸업하고 오페라를 하고 싶으니까 오페라 전공 쪽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 예술전문사 과정으로 들어온 거죠. 병역기피 그런 것 때문에 병무청이 맨날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예민한데, 예술전문사라는 말은 자기네 조항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병역 연기를 해주면 곤욕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병역 연기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총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게 안 되면 내가 총장으로서 학생들을 무슨 낯으로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걸리니까 정말 한꺼번에 이 모든 문제를 종결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 예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여성 운동한다 그래서 “그래 너 여성 운동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남장하고 싶으면 남장하고, 아이 안 낳으려면 안 낳아도 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비가 사실 그럴 순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의 여성운동을 다 존중하고 그래도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어른이 취할 입장이지. 그래 “너 가시밭길 가서 네 것 성취해” 이런 말은 내가 아버지라면 못한다고 봐요 근데 실력주의? 말 좋죠. “야 너희들 실력주의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실력으로 승부해서 나중에 너희 예술전문사라는 이름을 석사라는 이름보다 더 멋지게 만들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럼 그동안에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군대 가고, 무슨 여행 여권에 인정도 못 받고, 모든 차별받는 이걸 다 하고, 2, 30년 뒤에 영광적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냐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건 밖에서 하는 소리지.

###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 준 학교**

총장 퇴임 후 평소처럼 돌아가서 학생들 만나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총장 하면서 공백 있다가 학생들을 다시 만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동안 또 발전이 있 었고, 맨날 국회의원 만나고 그러다가 학생들 만나니까 다시 나를 되찾은 것 같고 내가 못 한 일은 다음 총장들이 잘할 거라고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뻔히 아는데, 게을러서 안 한 것이 있겠어요? 안 돼서 못한 거지.

총장하다 보니 재미있는 사건도 많았어요. 한번은 전통예술원 학부모들이 내 방에 한 번 몰려온 적이 있었죠. 뭔가 하면 구조조정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무용원 전통무용 파트와

전통예술원의 무용 파트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실 잘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해볼까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내 방에 찾아왔죠. 그래서 내가 그럼 다시 연구를 해 보겠다 했지요.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논리가 따로 있잖아요. 개념적인 논리보다 현장을 움직여가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이쪽은 상당히 창작과 관련이 된 것이고, 저쪽은 상당히 고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억지로 할 건 아니겠다 싶어 내가 뒤로 물러서기도 했죠.

그래도 총장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행복하면 좋아요. 재임 시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죠. 그럴 땐 총장이 누군지 신경도 안 써요. 학교 방침이 적당하면 학교 방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별로 뭐 학생들이 안 되긴 안됐어도 예를 들면, 미술원 같은 경우에 완성이 다 안 돼서 안기부 차량대대, 지금 영상원 연극원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매우 후진 건물이 있었죠. 거기 난방이 됐겠어요? 거기에 이제 미술원이 꽤 오래 있었죠. 이게 세상에 영재라는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추운 데서 고생시키는데 참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참 고마운 시절이었어요.

###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각 원을 개원하는 얘기를 했지만, 각 원을 개원할 때 교학처장으로 실무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까지 가서 원을 하나씩 개원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우리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의 우리 예술계의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화된 것이 우리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그런 첫 마음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이게 굳어버리니까. 다시 깨고 새로운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럴 힘을 선생들과 학생들과 문화부가 좀 생각도 나누고 실천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에 오는 사람들 보면서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도 알고 느꼈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하고 느꼈죠. 학생들 중에 멍청한 사람 있고. 똑똑한 사람 있고 교수들 중에 게으른 사람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어느 사회나 가면 다 그런 사람이 있듯이, 공무원 중에도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하고 국가와 공공선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중에는 자기 진급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는 그런 것들을 잘 빚어서 어떤 시대의 좋은 사람들이 잘 맞아서 한번 잘 하면 잘 풀리는 것이고, 또 잘 안 맞으면 애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20년은 크게 보아 괜찮다고 봐요.

우리 아이 둘이 우리 학교 졸업생인데. 둘 다 외국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너무나 잘 배운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웬만하면 담론에서 풀린 적이 없고 오히려 또 유럽에 갔던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그런지 자기가 오히려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고 왔다. 이런 말, 지금 독일에서 건축 설계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설계사무실이 돌아가거나 거기서 하는 생각이나 그걸 실행에 옮기는 구조나 그런 것은 자기는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본대요. 다 알고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해 왔던 거다.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베이스가 독일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구조에서 좀 다르다. 시스템에서는 아직 우리가 전반적으로 못 따라가는 것을 느낀대요. 그런데 예술계라든가 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갖다 놓으면 오히려 뛰어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얘깁니까.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교수들의 대책 없는 학교 사랑, 학생들의 대책 없는 자부심이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게 없으면 신진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어요.